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롬 15:12~21

한 사람 아담

로마서 5장12절은 한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을까요? 아담의 죄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수원에 어떤 사람이 극약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 인간은 사망을 당하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환경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아예 폐쇄시켜 버립니다. 인간은 에덴동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지상에 에덴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동산은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에덴동산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 속에서 그 창조적인 모습, 반짝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죄가 우리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폐쇄시키고 생명나무를 숨겨버렸습니다.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엉킴귀와 가시로 뒤덮힌 저주 받은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그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결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한 계획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는 1~5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구원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사람 아담에게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접촉되어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것은 아담 한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 한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죽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뽑아내고 살려내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사람 아담,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한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사람 아담과 또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두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의 시발점였다면 둘째 아담은 죄의 마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들었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아담이 하신 일을 가리켜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구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선포만 하여도 귀신이 떠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나의 구원을 의심케 하고 나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의 구원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모든 체계와 술수가 순식간에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사람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이 본문의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

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역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이포로지(Typo-logy)라고 합니다. 모델은 같은데 역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챙깁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씻고 닦고 해서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가는 곳이면 쓰레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만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쓰레기만을 뿌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다 챙기고 정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타이포로지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예수께서 하나씩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는 죄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정죄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인 된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의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과 합리와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을 믿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사가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의지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논리가 내 영혼에 비수 같이 꽂힙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아담이 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통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기본적 발상법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가 창조론적 사고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고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오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버리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역사를 보면서도 이 발전적, 진화적 틀을 사용합니다. 죄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조금 잘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경험과 사고법은 인간 속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경험,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는 그런 사고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창조론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아빠, 엄마는 누구냐?’고 자꾸 묻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두번째 대비,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려워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보다 나쁜 사람 많던데 뭐”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도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 역시 성경의 특별한 역사가 없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2천년 동안 끊임없이 되어 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한 구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의한 구원이 아니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비교는 사망과 생명의 비교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씨름하는 것을 보면 막판 뒤집기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막판 뒤집기입니다. 지옥 자식이었는데 막판에 확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갔다가 빠져나왔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일과 헌금에 대한 보상으로 지옥에서 빼 줬다”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생각 안 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면 됩니다.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이 구원을 묵상하면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되었다는 말은 보통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의 개념도 많이 다릅니다. 고대에서는 양편에 진을 치고 싸우는 사람을 앞에 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웁니다. 사람을 바꾸면서 계속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최고 책임자끼리 싸우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과 싸울자 누구냐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군에게 싸울자 나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고 골

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의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이란, 아담의 죄를 예수께서 회복시켜주셨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구원을 19절에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Faith)’라는 단어는 ‘충성스러운(Faithful)’과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진정한 충성입니다. 참 믿음은 참 충성을 가져옵니다. 참 구원은 참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가하는 것은 이 두 단어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업이 잘 되거나 부도가 났거나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있는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화끈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나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말끝마다 반항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생리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투쟁하고 고발하고 이것은 생리상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질의 분들은 회개하고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남을 꼬집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라온 과정에서 늘 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체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푸근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캐릭터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떨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순종했다면 결코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어떨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자녀는 의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기계와 같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까?”하는 질문이 예수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순종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이유가 있어서도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화가 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화가 난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

입니다.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축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힙니다. 자기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면 은혜가 있습니다.

20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했다는 것은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뚜렷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막연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병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고 병은 알려져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계속 괴롭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많이 드러나면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 은혜도 더욱 필요합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구원, 귀한 구원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이 의인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v.com>